

# “국방예산 줄여 사회안전망 확충 힘써야”

### 취약계층 보호·사회안전망 강화위한 예산 확대 당연 “우리 정부, 거꾸로 국방예산 확대하고 있어” 비꼬아 국방예산 늘렸지만 수해피해 농업예산 0.8%에 그쳐 국내총생산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 OECD 최하위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 광주본부  
가 군비 증강 목적의 국방 예산을 삭감, 코로나19 재난 지원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17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군비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 복지 향상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서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전국민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확대는 당연한 조치이자 국가 의무다”며 “정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 그 비용으로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러시아 등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자 국방 예산을 줄여 민생 예산 확충을 고려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거꾸로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9월3일 제출한 예산 편성안에서 국방예산은 5.5%나 늘렸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농민을 위한 농업 예산은 0.8%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국내총생산(GDP)대비 ‘사회복지 예산 지출’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했다”며 “국민 복지 향상 예산이 국방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광주진보연대·민주노총광주본부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정부의 군비증강을 규탄하고 9-19군사분야남북합의서 정상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7%다. 중국 1.9%, 프랑스 1.9%, 영국 1.7% 등과 비교해도 과도하다. 지난해 우리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면서 국방 예산 삭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하기로 했다”면서 “군비 확장은 남북 신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 편의점 2곳서 잇단 강도 행각 20대 검거

광주 도심 편의점 2곳에서 잇따라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흉기를 든 채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A(2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14분께 동구 대인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B(22)씨를 흉기로 위협해 42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앞서 오후 4시56분께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를 협박해 담배 1갑(45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으로 500만원가량 부채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40여 분 만인 오후 5시58분께 광산구 송정동 KTX송정역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밥값 못 내’ 식당서 상습 행패 30대 구속영장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모 식당에서 30분간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 등 위협적인 언행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식당에서 99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뒤 계산을 하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거주지가 없는 A씨는 과거에도 일대 식당 등지에서 비슷한 행패를 부려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형사 입건 직후 밥값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과거 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60일간 ‘일상생활 주변 길거리 폭력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미한 범죄일지라도 상습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엄정대응하고 있다.

## 출동 경찰관에 막무가내 행패 50대 입건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15분께 광산구 송정동 한 편의점 앞에서 출동한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밀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관할 파출소에 분실 신고를 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B경위에게 다짜고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중고 물품 게임 머니 판매 사기 20대 구속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온라인 게임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게임 화폐와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A(2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게임 3곳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린 뒤 B(22)씨를 비롯한 32명에게 860만 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거처가 없던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물품 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온라인 게임상에서 “믿고 송금해주면 게임 머니를 즉시 보내주겠다”며 구매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기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남도, 추석명절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대형마트·재래시장·음식점 등 점검



전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농·축·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오는 28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수와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추석 성수품이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다.  
음식점은 소, 돼지, 닭, 양,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도는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경미한 사항은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농식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 금호타이어, 전체 도급사 계약지속...동반성장 다짐

### 향후 정상적인 운영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뜻모아

금호타이어 전체 도급업체들이 계약을 지속하기로 결정해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금호타이어는 17일 그동안 6개 도급

사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기존 계약을 모두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급사들은 지난 7월말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원청인 금호타이어

에 도급계약을 스스로 포기하는 해지 공문 발송을 통해 8월31일까지 계약 유지를 하겠다고 통보했었다.  
제조라인 4개사와 출하라인 2개사 등 6개 도급업체는 오는 12월20일까지 계약기간이었다. 그러나 원청인

최이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